

청주보호관찰소

○ 매체 : 충청일보(2026. 9. 14.)

○ 제목 : [기고] 법(法)의 온기와 엄정함 사이, 어느 청년이 찾은 '진짜 꿈'

법(法)의 온기와 엄정함 사이, 어느 청년이 찾은 '진짜 꿈'

[기고] 박성준 청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담당 보호관찰관

사마천은 '사기(史記)'순리열전에서 "법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일 뿐, 사람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근본은 덕과 교화에 있다"고 하였다.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담당하며, 필자는 이 문장의 무게를 매일 체감한다. 형벌의 차가움만으로는 닫힌 내면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음을,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길 잃은 이들을 다시 건강한 이웃으로 돌려놓는 데 있음을 말이다.

얼마 전, 인터넷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명령(40시간)을 받은 A군(19, 단기보호관찰)을 만났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전공 선택 이유를 묻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요"라고 무심하게 답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없이 취업의 수단으로만 전공을 대하던 그에게, 이번 처분은 그저 운 나쁘게 치러야 하는 '벌(罰)'에 불과해 보였다. 필자는 그에게 단순 노역 대신, 전공과 맞닿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배치를 결정했다. 중증 치매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치우고, 병원 바닥을 청소하는 힘든 자리였다.

예상대로 배설물 냄새와 해보지 않은 노동에 A군은 얼굴을 찌푸리며 시간만 때우려 했다. 그러나 묵묵히 굶은 일을 해내던 어느 날, 힘들어 하던 A군에게 어르신들이 주름진 손으로 A군의 손을 쥔 채 작은 미소로 건넨 따뜻한 인사는 단혀 있던 청년의 마음을 녹였다.

사후면담에서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걸 느꼈습니다."라며 학교로 돌아가면 전공에 신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히 징벌적 노역이 아니다. 땀방울의 가치를 깨닫고 무너진 자존감과 시민의식을 되찾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 내 처우'다. 강제된 봉사가 한 청년의 인생 나침반을 바로잡은 이 미담은 보호관찰의 순기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법이 이토록 따뜻한 온기로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을 지탱하는 '엄정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자에게는 따뜻한 조력자가 되지만, 법의 테두리를 기만하고 의무를 해태하며 재범의 위험을 굽히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

교화의 온기와 법 집행의 엄정함. 이 두 수레바퀴가 오차 없이 맞물릴 때 우리 지역사회는 더욱 안전해진다. 오늘도 청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들은 엄정한 법의 잣대 끝머리에 사람을 향한 온기를 남겨두되, 결코 그 저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